

미국 마감 상황

2008.11.13

이승준 02) 2009-7088
leesj@leading.co.kr

12일 뉴욕증시는 미국 2위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서킷시티의 파산신청에 이은 미국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의 실적 하향 조정과 투명성이 사라지고 있는 미국 정부 정책의 불신으로 인하여 급락.

이날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411.30p(4.73%) 밀린 8,282.66에 장을 마감. 어제 194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던 GM이 5.5%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다우지수의 모든 종목들이 하락.

S&P500 지수는 46.65p(5.19%) 내린 852.30에 마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81.69p(5.17%) 하락한 1,499.21을 기록.

뉴욕금융시장은 베스트바이의 실적전망 하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 출발. 베스트바이는 2009 회계연도 순익 전망치를 주당 3.25~3.40달러에서 2.30~2.90달러로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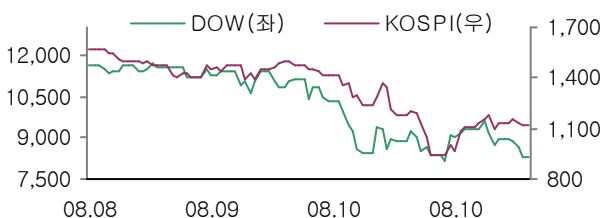
서킷시티의 파산보호신청에 이은 베스트바이의 실적전망 하향 조정은 미 금융 위기로 인한 소비자 지출의 급격한 감소가 실물경제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를 증폭.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금융구제법에 따라 확보된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금융회사의 부실자산매입에 사용 않고 은행권에 대한 자본 투입과 소비자 신용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하겠다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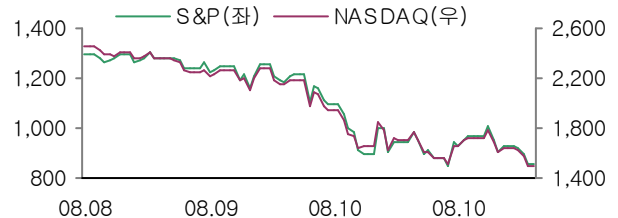
이번 재무부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미국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대변.

미국 시장 주요 지표(pt, %)

지수	종가	1일	5일	10일	1개월	3개월	12개월
DOW(좌)	8,282.66	-4.73	-9.37	-7.88	-11.77	-28.86	-37.76
S&P(좌)	852.30	-5.19	-10.55	-8.36	-15.05	-33.91	-42.45
NASDAQ(우)	1,499.21	-5.17	-10.85	-9.53	-18.71	-38.32	-43.93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